

황희찬, UCL 본선 데뷔전 골... 이강인, 한국인 최연소 데뷔!

황희찬 1골 2도움·홀란드 헤트트릭...잘츠부르크, 헝크에 6-2 대승 발렌시아 이강인은 '한국인 역대 최연소 UCL 본선 무대' 데뷔전

‘황소’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 무대에서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발렌시아)은 한국인 역대 최연소 본선 데뷔전을 치렀다.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은 18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츠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헝크(벨기에)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1차전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1골 2도움으로 팀의 6-2 대승을 이끌었다.

잘츠부르크는 황희찬의 멀티 공격포인트와 함께 엘링 홀란드의 헤트트릭까지 이어지면서 1994-1995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이후 무려 25년만에 복귀한 본선 무대 첫 경기부터 화려한 득점쇼를 펼쳤다.

또다른 E조 경기에서는 나폴리(이탈리아)가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잉글랜드)을 2-0으로 물리쳤다.

이에 따라 잘츠부르크는 승점 3(골득실 4)으로 나폴리(승점 3·골득실 2)와 승점이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E조 선두로 올라섰다.

잘츠부르크는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렸

고, 황희찬이 시발점이 됐다. 홀란드와 함께 4-4-2 전술의 최전방 투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전반 2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으로 볼을 내렸고, 이 볼은 앙투안 베르네스와 미나미노 다쿠미를 거쳐 홀란드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황희찬은 전반 19분에도 중원에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홀란드에게 넣어줬지만 뛰어난 골키퍼가 볼을 잡아냈다.

전반 33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발끝 감각을 끌어올린 황희찬은 전반 34분 후반에서 투입된 패스를 잡아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잡아낸 뒤 전방으로 쇄도하던 홀란드에게 볼을 내줬다.

홀란드는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트렸고, 황희찬은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 무대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황희찬은 마침내 전반 34분 즐라트코 유루조비치가 투입한 볼을 잡아 수비수 뒷공간으로 파고든 뒤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의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골이었다.

이번 득점으로 황희찬은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손흥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어린 나이로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골을 터트린 선수가 됐다. ‘이전까지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박지성(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손흥민(토트넘)이 전부였다. 손흥민은 22살 때인 2014년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골을 맞았다.

전반 40분 헝크의 존 루쿠미에게 추격골을 내준 잘츠부르크는 전반 45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홀란드의 득점포로 다시 달아났다. 황희찬은 홀란드의 헤트트릭을 도우면서 전반에만 1골 2도움의 ‘멀티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잘츠부르크는 전반 추가시간 도미니코 소보슬라이의 득점포가 이어져 5-1로 전반전을 마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황희찬은 후반에도 특유의 돌파력을 앞세워 추가 공격포인트를 노렸다.

후반 17분 헝크의 음와나 사마타에게 실점한 잘츠부르크는 후반 21분 안드레아스 울머의 썬기포가 터지면서 스코어를 6-2로 만들었다.

황희찬은 후반 35분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팻슨 다카에게 킥패스를 넣어줬고, 볼을 잡은 다카가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황희찬의 도움 헤트트릭 기회가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영국 통계전문 매체 ‘후스코어드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은 18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츠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헝크(벨기에)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1차전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1골 2도움으로 팀의 6-2 대승을 이끌었다. 사진은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황희찬. /연합뉴스

닷컴’은 황희찬에게 양 팀 선수를 통틀어 최고 평점인 ‘10점 만점’을 줬다. 헤트트릭을 달성한 홀란드(평점 9.5)보다 높은 평가였다.

황희찬은 이날 시도한 4개의 슈팅이 모두 골대 안으로 향하는 유효슈팅이었고, 패스 정확률도 86.7%로 높아 ‘최고 평점’의 기쁨을 맛봤다.

조별리그 1차전을 화려한 승리로 이끈 잘츠부르크는 10월 3일 오전 4시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2차전을 펼친다.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찬사를 받는 이강인(18·발렌시아)은 영국 런던의 스토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잉글랜드)와 조별리그 H조 1차전 원정 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후반 45분 교체 투입됐다.

2001년 2월 19일생으로 만 18세 7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강인은 한국인 최연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기록을 새로 썼다.

이전까지 정우영(현 프라이부르크)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만 19세 2개월이 막 지난 지난해 11월 벤파카와의 조별리그 경기에 출전한 것이 역대 한국인 최연소 출전 기록이었다.

유럽 무대에서 일찌감치 자리 잡아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손흥민(27·토트넘)도 챔피언스리그 본선은 만 21세인 2013년 처음 출전했다. 이강인은 이 둘을 모두 앞질렀다.

이강인이 뭉치 시간은 추가 시간 4분을 포함해 5분 남짓이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첼시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기회를 얻으며 이번 시즌 전망을 밝혔다.

발렌시아는 후반 29분 로드리고의 결승골을 앞세워 첼시를 1-0으로 격파, 릴(프랑스)을 3-0으로 완파한 아약스(네덜란드)에 이어 H조 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KIA 양현종, 어깨 휴식 후 프리미어12서 ‘역투 준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31·사진)의 2019년 정규리그는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리그 개막 이래 6경기에서 1승도 못 건지고 5패, 평균자책점 8.01로 시작한 양현종은 이후 23경기에서 16승 3패, 평균자책점 1.17이라는 눈부신 성적으로 반등하고 시즌을 마쳤다.

17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무승부로 등판해 예정대로 5이닝만 던지고 내려왔다. 그는 5년 연속 180이닝 이상을 던져 강한 어깨를 공인받았다.

양현종의 시즌 최종 성적은 184%이닝 동안 두 번의 완봉승을 포함해 16승 8패, 평균자책점 2.29다. 양현종은 이달 11일 롯데 자이언츠를 제물로 무사사구 완봉승과 함께 구단 상대 승리, KBO리그 역대 16번째로 통산 투구이닝 1천800이닝 돌파를 한꺼번에 이뤘다.

그는 5월과 8월 프로야구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특히 8월엔 월간 투수 상마저 석권했다.

힘 없이 달려온 양현종의 어깨는 약 한 달 가까이 가동을 멈춘다. 11월 열리는 프리미어12를 앞두고 양현종은 다시 어깨를 예열한다. 양현종은 어깨 통증으로 2015년 초대 프리미어12대회에 불참했다.

KBO리그 최고 강경 양현종의 위대한 레이스가 프리미어12에서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 확보와 대회 2연패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진다. /연합뉴스



2019 슈퍼챌린지 최종전 일정 연기 오는 11월 2~3일 개최

2시간 동안 서킷을 질주하는 내구레이스인 ‘2019 슈퍼챌린지’ 4라운드 최종전이 11월 2~3일 전남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다.

슈퍼레이스는 지난 9일 “최종전을 흥미롭게 치르기 위해 경기 일정에 변화를 줬다”라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모터스포츠 강국들의 드라이버들도 처음 참가하는 국제 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외 드라이버 초청을 통한 국제 대회로 치르기 위해 일정을 한 달가량 미뤘다. 이번 4라운드 최종전은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의 상설 서킷(3.045km)에서 열린다. 2019 슈퍼챌린지 최종전의 참가 신청은 10월 7~20일까지 슈퍼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람이 스마트 고속도로

창간 18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